



OPEC+, 감산 협력 지속 재확인

Summary

- OPEC+, 28일(현지시간) 39회 정례회의 진행. 2027년에도 OPEC+의 생산 협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으며, 2개월마다 공동장관감시위원회(JMMC) 회의를 개최하고 40회 정례회의는 2025년 11월 30일(현지시간) 개최 예정임을 발표
- 사우디 등 현재 증산에 나서고 있는 산유국은 7월에도 증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발표. 원유시장 내 과잉공급 우려 높아진 상황이나, 보상 감산안 등을 감안했을 시 실제 증산 규모는 OPEC+가 발표한 것 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이에 유가의 추가 약세도 부재할 것으로 예상

사우디 등 OPEC+ 8개국, 7월에도 증산 예정

28일(현지시간) OPEC+는 39회 정례회의 진행.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OPEC 산유국과 비OPEC 산유국간의 협력 지속을 재확인했으며, 2027년에도 협력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 OPEC 사무국이 모든 OPEC+의 최대 생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임 받았고, 이는 2027년 OPEC+ 산유국의 생산 기준 설정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할 것으로 발표했기 때문. 또한 공동장관감시위원회(JMMC)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된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40회 정례회의는 2025년 11월 30일(현지시간) 개최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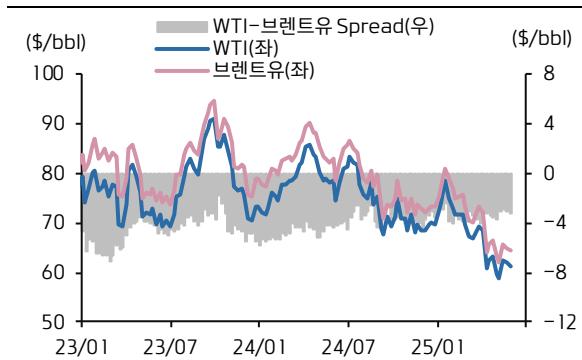
한편, 현재 OPEC+내에서 증산을 진행하고 있는 산유국은 사우디 등 2023년 자발적 감산을 통해 생산 축소를 주도해온 국가들로 한정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은 7월 산유량을 31일(현지시간) 논의.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은 7월에도 증산을 진행할 예정이고, 보상 감산안 준수 의사도 재확인하였음. 또한 OPEC+의 증산은 계속해서 지난해 말 발표했던 증산 계획 대비 빠르게 진행 중. 이에 8월 산유량은 7월 6일(현지시간) 결정할 것으로 발표.

원유시장, 과잉공급 우려 지속

원유시장은 여전히 하방 압력이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 지속되는 가운데 OPEC+가 계속해서 증산에 나서고 있기 때문. 물론 OPEC+의 2분기 증산은 예정된 사실이나, 증산 규모가 당초 발표되었던 것 보다 크다는 점이 원유시장 내 과잉공급 우려를 자극. 지난해 12월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우디 등 OPEC내 5개 산유국은 2025년 4월부터 매월 약 10만 배럴 규모의 증산을 계획. 그러나 이들 산유국은 5월부터 증산 규모를 상향 조정했으며 현재 3개월 연속 매월 약 30만 배럴 수준의 증산안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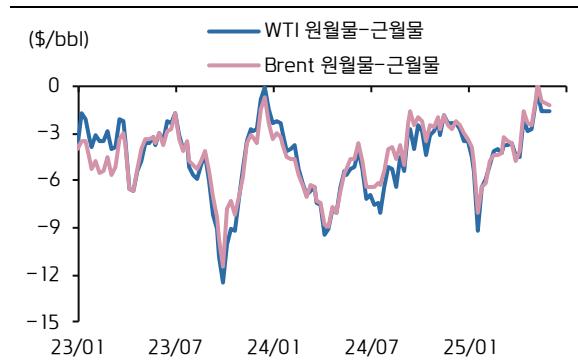
특히 감산을 주도해온 사우디가 유가 하락에도 증산을 이어가며, 주요 산유국의 점유율 경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과도한 우려로 판단. OPEC+내 모든 산유국 중 생산 여력이 가장 큰 사우디가 여전히 단계적 증산 기조를 유지 중이고, 이라크 등은 보상 감산안을 이행해야하기 때문. 만약 보상 감산안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실질적인 OPEC+의 증산 규모는 발표한 숫자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음.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월간 보고서를 통해 이를 지적했고, 이라크의 실제 산유량은 매월 줄어들고 있음. 또한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사업 철수로 추후 베네수엘라 산유량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이를 감안하면, OPEC+가 증산에 속도를 내더라도 원유시장 내 대규모 과잉공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물론 단기간 내 무역 분쟁 발 수요 불안이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유가의 가파른 반등은 어려워 보이지만, 수급 여건을 고려했을 때 유가의 추가 급락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전망.

최근 국제유가와 WTI-Brent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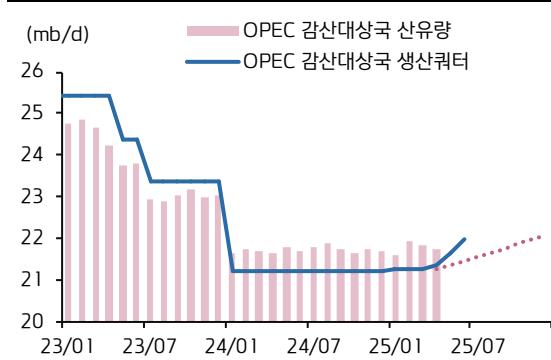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WTI, Brent 원월물-근월물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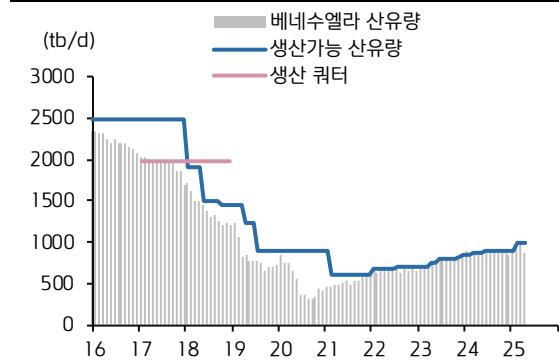
OPEC 감산대상국 산유량과 생산쿼터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분홍색 점선은 과거 발표된 생산 쿠터 기준으로 작성

베네수엘라 산유량과 생산가능 산유량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등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등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